

앞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가 구세주가 됩니다 これからすべての人類は一つになるだけでなく、人類すべてが救世主になります

코레카라 스베테노 진루이와 히토츠키 나루다케데 나쿠 진루이 스베테가 큐우세에슈니 나리마스

救い主になる方法はとても簡単な方法であり、これは天機に属する言葉です。人類歴史6000年以來、これをこのように論じた人がなかった哲學です。この哲學は天國の知恵であり、學問です。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천기에 속하는 말입니다。이것은 바로 인류역사 육천년 이래 이와 같은 철학을 논한 사람이 없습니다。바로 완성자만이 이러한 철학을 처음으로 논하는 것입니다。이 철학은 하늘나라의 지혜요, 하늘나라의 학문입니다。

神様に委ねてこそ神様になるが、神様に委ねる哲學が何であるかを知ればとても簡単なことです。即ち、神様の中に私がいって私の中に救い主がいないでいなければ、神様と私が一つになるのです。一つ(ハナ)様(ニム)の字を付けなければ何になりますか。神様(ハナム)になるのです。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철학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하나에 '님'자를 붙이면 무엇이 되지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このように救い主の中に皆さんがいて皆さんの中に救い主がいないでいなくてこそ、救い主と皆さんが一つになり、その時、皆さんが救い主になりながら天國に入ることが出来るのです。이처럼 구세주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구세주가 있어야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救い主は完成者です。完成者になる方法は、私が救い主になる完成者の中に入れば完成者になるようになり、また、私の中に完成者がいないでいなければ私が完成者になるのです。바로 구세주는 완성자입니다。완성자가 되는 방법은 구세주가 되는 완성자 안에 들어가면 바로 완성자가 되게 되며 또 내 안에 완성자가 계시면 바로 내가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完全に神様に委ねること 온전히 맡기기

これは、私が初めて驛舎に出て話した「誰をも自分の身のように思え」という神様の律法の話なのです。一つになれば終りであり、全人類が一つになればさらにする事は無いのです。だから、皆さんがこの學問を知れば神様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無く救い主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得ないのです。私が救い主の内において救い主が私の内においていなければ一つになるでしょう。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처음에 역곡에 나와서 모든 식구들에게 말씀한 누구든지 내뉘어쳐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하나가 되면 끝나는 것이며 온 인류가 하나가 되면 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알면 하나님이 안될 수가 없고 구세주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내가 구세주 안에 있고 구세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가 돼요, 둘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だから、救い主になる方法は、救い主は勝利者を経て更に進んだことを経て完成者になった後、神様になり、その次に救い主になるのです。그래서 바로 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구세주가 승리자를 거치고 또 이겼다는 거져서 완성자가 된 다음, 하나님이 되었다

가 되고 마침내 그다음에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それ故に、今日、私が密室に入ってどうすれば神様の恩恵を受けて神様のみ旨を成し遂げるだろうかといつも工夫しながら、密室で研究を繰り返した果てに神様に完全に委ね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ことを見出したのです。更に、完全に委ねたと思って委ねなかったことがあったので、完全に委ねたことになる為には私が神様の中において私の中に神様がおいでになるべきで、そうしなければ皆さんはすべて救い主にならないことはないのです。그런고로 오늘날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것을 늘 고심하면서 밀실에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바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온전히 맡기다가 또 안 맡긴 것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맡겼다고 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온전히 맡겼다고 완성되는 것입니다。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가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だから、救い主になろうとして神様の中に入る為には罪を犯してはいけません。罪を犯さず奇麗な心霊に成ってこそ神様の中に住むことが出来るのです。神様が私の中に入られる為には奇麗でなければならぬので、私に欠点がなく奇麗な心霊になってこそ、神様が私の中においでになるのです。그러므로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를 몽땅 짓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죄를 안 짓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므로 내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すべての人を自分と同じように考えることで、全人類に平和を与えること 모든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여김으로써 온 인류에게 평화주기

靈母様の時々は従順してこそ救われると話され、その次、私が出て誰をも自分の身のように思ってこそ救われると話しました。영모님 때는 순종을 해야 구원이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엔 바로 이 사람이 나와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구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誰をも自分の身のように思え」という言葉は何かと言えばお前と私の区別がないということでも自分と同じだ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誰も自分と同じなので全人類が二つではなく一つになるのです。これは全人類に平和を與えることです。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같은 고로 온 인류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이것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眞の平和は全人類が一つになってこそ成し遂げられることであり、一つにならなければ眞の平和は成し遂げられないのです。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イスラエルとパレスチナが戦争を續けながら休戦し、また、平和會談をしている間に戦

争をするでしょう。そのようになったのはイスラエルとパレスチナが一つにならなかつたから、平和にならないのです。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고, 평화 회담을 하다가 또 전쟁을 하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だから、イスラエルとパレスチナが平和の國になる為には一つにならなければならぬのです。イスラエル人がパレスチナ人を自分の身のように思ってパレスチナ人がイスラエル人を自分の身のように思えば戦争しますか? 戦争することが出来ないですね。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몸같이 여기다면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救い主を高度に思慕すること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기

だから、皆さんがこの話を聞いて救い主を高度に思慕すれば、救い主の内でするようになり、救い主が皆さんの内でするようになるのです。そうなければ救い主が私であり、私が救い主になるのです。그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 안에서 살게 되고 구세주가 또 여러분들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바로 구세주가 나요, 내가 곧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救い主が23年間一人で救い主の役割をしたが、今後、全人類は一つになるだけではなくて救い主がたくさん出るでしょう。皆さんが救い主を高度に思慕して救い主の内でする、救い主が皆さんの内でするなら救い主と皆さんが一つになるのです。救い主と皆さんが一つになれば皆さん이救い主になるのです。23년간 구세주 혼자서 구세주 노릇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그것은 바로 마음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는 생각을 함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구세주 안에서 살게 되고 또 구세주 자신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게 되니까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皆さんが完成の救い主になれば、救い主と同じになるのです。救い主が一人しかいないから、魔鬼が救い主だけ無くせば終わりだと思って救い主を獄中に入れたが、救い主が多ければ獄中に入れ續けても救い主が續けて出るからその時は魔鬼が手足をすべて投げ出しますね。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의 구세주가 되면 구세주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구세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들이 구세주 하나만 없으면 되는 줄 알고 구세주를 옥중에 집어넣었지만, 구세주가 많으면 하나 집어넣으면 또 있고 또 하나 집어넣으면 또 있고 구세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앞발 뒷발을 들까 안들까? 앞발 뒷발 모두 들게 되는 것입니다。*

2003年8月11日 勝利者の説教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56회

계룡산 정도령은 천하를 밝히고 지상선경을 이루는데 계룡은 산 이름이 아니니라

弄弓哥(三) 룡궁가

鷄籠都邑非山名 계룡도읍비산명
誕生靑林正道士 탄생청림정도사
末世聖君視不知 말세성군시부지
其聖天地合其德 기성천지합기덕
雲中靈神正道令 운중령신정도령
遍踏天下朝鮮來 편답천하조선래
弓乙大道天下明 궁을대도천하명
不老長生化仙國 불로장생화산국
天降弓箭天意在 천강궁부천의재
極齋養生誰可知 극제창생수가지
舊染儒者不覺理 구염유자불각리
孔孟以後混精神 공맹이후혼정신
水流不息當末世 수류불식당말세
搖頭轉目人不見 요두전목인불견
千變萬化弓乙道 천변만화궁을도
亞細亞天下通 불야중불천하통
鷄西四角邦無手 계유사각방무수
十八術出世知 십팔술출세지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해서 지상 선국을 건설한다는 말에서 궁주 계룡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목운(木運 72궁) 금운(金運 81궁)의 정도령(正道令)이 탄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목운과 금운이 청림정도사이며 금운 속에 목운이 합일 되어 있으므로 결국 금운 81궁 정도령이 청림정도사가 되는 것이다(중간에 여인 한분이 있으니 세 분이 합하여 금운 81궁 속에 하나가 되어 있다)。청림(靑林)은 손진양목(巽震兩木)을 말하며 손(巽)은



계(鷄-닭)요 진(震)은 룡(龍)이다。따라서 계룡은 중정도 궁주 계룡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세의 성군은 천지의 음양합덕(陰陽合德)하신 분 즉 무극대도를 완성하신 분으로 구름 같은 감로해인(이슬성신)을 내리는 신령스러운 천신(天神)이 강림한 정도령이니라。천하를 두루 살피다가 조선 즉 한국 땅에 오셔서 궁을의 십승대도(十勝大道)로 천하를 밝히고 사람들을 불로장생하게 하여 지상선선의 나라를 이루어 내느니라。

천신(天神)이 강림하여 영부(靈符) 즉 감로해인(이슬성신)을 내림은 다 그 뜻이 있나니 창생을 고해에서 구제하려는 것을 누가 가히 알겠는가? 구습(舊習)에 물든 선비들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 공자 맹자 이후 모두 정신이 혼미하여 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이 세월이 흘러 말세를 당하니 머리를 움켜져 눈을 굴러보아도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

었느니라。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것이 궁을의 도요 궁을 삼승이 천하에 으뜸가는 미륵 불이요 바로 정도령으로서 궁을의 도가 천하에 다 통하니 중천계벽의 첫 문을 열어 죽는 세상을 죽을 없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박(朴=목운 72궁)씨로 출현하는 것을 알지라。

外有八卦九宮裡 외유팔괘구궁리
內有十勝兩白理 내유십승양백리
天地都來一掌中 천지도래일장중
執衡按察心靈化 집형안찰심령화
眞人用事海人法 진인용사해인법
九變九復變易法 구변구복변역법
天地運來但當人 천지운승단당인
弓乙合德朴活人 궁을합덕박활인
修道先出容天丈 수도선출용천박
龍天伯人亦一理 룡천백인역일리
天崩地拆素砂立 천붕지택소사립
火雨露三豐理 화우로삼삼풍리
天主大堂築高山 천주대당축고산

萬事一理成道時 만사일리성도시
聖神逆迎嘲笑時 성신역영조소시
天災地變並至時 천재지변병지시
生死門之生死路 생사문지생사로
萬一生門不入時 만일생문불입시
死門之中突入時 사문지중돌입시
魔王之前從鬼滅 마왕지전종귀멸
凡觀無味不知人 범관무미부지인
天地翺翔何能免 천지개벽하능면
聖山聖地牛鳴地 성산성지우명지
萬世不變安心處 만세불변안심처
末世二楠或一人 말세이시혹일인
萬世春光一樹花 만세춘광일수화

하도낙서 육도삼략의 패상(卦象)에는 밖에는 8괘 9궁이 있고 안에는 십승과 양백의 이치가 있는데 천지의 운행도수가 십승 양백의 주인공의 한 손바닥 안에 있네니 저울을 잡으시듯 인간의 마음을 안찰(按察)하여 마음을 변화시키느니라。

이것이 진인(정도령)이 감로해인을 용사하는 참된 법이며 구변구복(九變九復)

의 변화의 역법에 따라 천지가 합하는 운(중천계벽의 운)을 타고 죽는 세상을 죽지 않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분이 바로 궁을합덕한 박활인(朴活人)이니 먼저 수도(修道)를 하여 나온 하나님의 일곱을 한 목운이니라(72궁 목운)。마지막으로 진장남(震長男)에 해당하는 81궁 금운 정도령도 같은 이치로 오시느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대로 마지막 중천운의 천지공사는 소사(素砂)에서 일어나느니라。화우로(火雨露) 삼풍해인이 내리는 하나님을 모신 큰 성전을 산과 같이 높이 세우니 만사가 하나의 이치로 합해지는 도가 완성될 때에 성신(聖神)을 거역하고 조왕(魔王)의 앞을 막아내려는 마귀들이 만세불변안심처(萬世不變安心處)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문(死門사문)으로 돌입하여 마왕(魔王)앞에 굴복할 때에는 마귀를 따라 멸망함이 있을 뿐이나라。무릇 보고도 아무 맛도 없다 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가 개벽할 때 어찌 그 재앙을 면하겠는가?

성(生)과 사(死)의 문으로 이르는 길에

서 만일 영원한 생명의 문(生門생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문(死門사문)으로 돌입하여 마왕(魔王)앞에 굴복할 때에는 마귀를 따라 멸망함이 있을 뿐이나라。무릇 보고도 아무 맛도 없다 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가 개벽할 때 어찌 그 재앙을 면하겠는가?

성산성지(聖山聖地)는 소 울음소리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는 진리 말씀을 해 주시는 곳ियो。이곳이 영원토록 만세불변(萬世不變)하는 안심처(安心處)이니라。말세의 주인공은 두 갑(甲)나무요(목운과 금운)。혹은 한 사람(목운, 여인 한 분, 금운의 삼위일체)이니 만세 영원토록 봄빛을 발하며 한 나무에서 영원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분 이로다。* 박명하 / 교사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름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